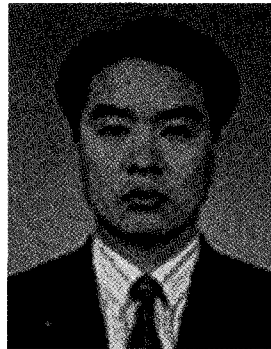


세계화를 위한 도약

노즐식 진공 · 가스충전포장기 국산화

■ 회사연혁

- 1992.1.1 가성포장기재 창립
- 1992.1 일본 Fuji Impulse Co.,LTD한국 내 대리점
자격획득
- 1996. 8 한국무역협회 회원 가입
- 1998. 4 노즐식 진공 가스충전 포장기 국산화 성공
- 1998. 6 터어키의 Bayraktar Plastik Co.,LTD와
해외 Agent 계약 체결
- 1999. 8 대형 노즐식 진공 가스충전 포장기인
GHV-1000 개발 성공
- 2000. 3 노즐식 진공 가스충전 포장기 한국, 일본에
동시 특허 출원.(No.10-2000-0014507)
- 2000.12 노즐식 진공 포장기 대한민국 기술대전
출품작으로 선정 및 출품
- 2001. 4 노즐식 진공 가스충전 포장기 유럽공동체
안전 인증인 CE마크 획득(TUV)
- 2001. 7 중국 상해 ProPak China 2001 참가
- 2001. 9 대만 UV Packing Material
& Machine Co.,LTD와 Agent계약 체결
- 2001.10 중소기업청 인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체 선정
- 2001.11 중국 북경 China Food Tech 2001 참가
- 2001.12 2001년 노즐식 진공 가스충전 포장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 2001. 1 태국 MTS Co., LTD & SIZI Corp Agent
계약체결
- 2002. 1 (주)가성팩으로 법인 전환



◀ 김인수
(주)가성팩 대표이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것은 하루에도 수백개의 회사가 설립이 되거나 도산되는 이러한 시대에 대한 대응방법 중 하나로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대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한가지만으로 승부를 건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닐까?

(주)가성팩은 설립 후 1992년 가성포장기재로 설립돼 줄곧 포장기계만을 고집하며 좀 더 나은 제품을 생산코자 임직원 모두가 일심으로 힘쓰고 있다.

다년간 쌓아온 비닐접착기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노즐식 진공 · 가스충전포장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른 (주)가성팩을 찾았다.



▲ 가성팩 법인 전환 및 창립10주년 기념행사 & 제품설명회

(주)가성팩 김인수 대표이사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포장도 여러 형태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장도 상품의 한 부분으로 그냥 용기에 담는다는 의미만이 아닌 제품을 평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시대에 맞는 제품은 물론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야 합니다”라고 피력했다.

노즐식 진공·가스충전 포장기를 국내 처음으로 국산화해 유일한 독보적인 제조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국내 판매는 물론이며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주)가성팩은 1992년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까지 꾸준한 개발투자를 통해 관록 있는 중견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1992년 비닐접착기 전문업체로 창업한 (주)가성팩은 같은해 일본 FUJI IMPULSE사의 노

즐식 진공·가스 충전포장기의 다수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대리점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국내 판매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장기계 업계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국내 포장기계의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주)가성팩은 일본 T.M INDUSTRY CO., LTD.와 기술협력을 하고 있어 현재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모델의 노즐식 진공·가스충전포장기를 개발, 생산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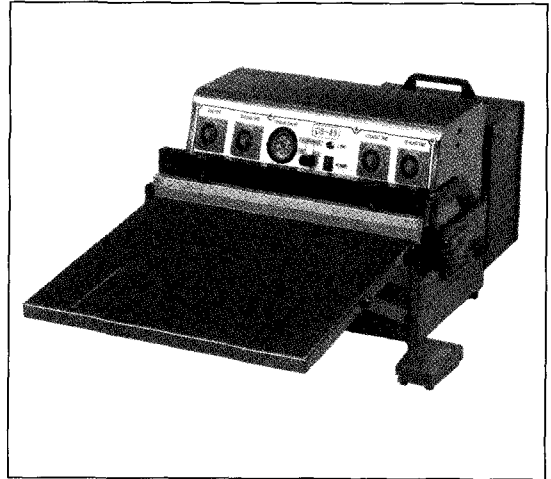
노즐식 진공·가스충전 포장기 국산화

(주)가성팩의 주력 생산 제품은 노즐식 진공·가스충전 포장기이다. 그 중 대표적인 모델은 탁상형으로 콤팩트한 CS-45/60 Series와 스탠드형으로 빠른 생산능력과 생산라인에 설치가

적합한 GV-45/60 Series 가 있다.

노즐식 진공·가스충전 포장기의 주요특징으로는 기계 1대로 3가지 작업방법이 선택가능(접착, 진공, 가스 충전)하고, 진공작업을 3가지 제어방식으로 선택가능하며 소 봉투부터 대 봉투까지 접착길이와 포장물 무게를 선택가능할 수 있다. 또한 질소(N2), 탄산(CO2), 알곤 등 불활성가스 충전 기능, 식품 진공포장시 인자기를 부착할 수 있어 유통기한 인쇄가 가능하다.

제품의 용도로는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부품 등에는 산화, 부식 변질방지, 건어물, 곡물, 떡류, 수산물 등 각종식품은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 탁상형 노즐식 진공 가스·충전 포장기

야채, 화훼 등에는 신선도를 유지, 의류, 침구류, 스폰지등 부피가 큰 제품을 부피를 최소화하고 각종 상품의 비닐봉투내 유통성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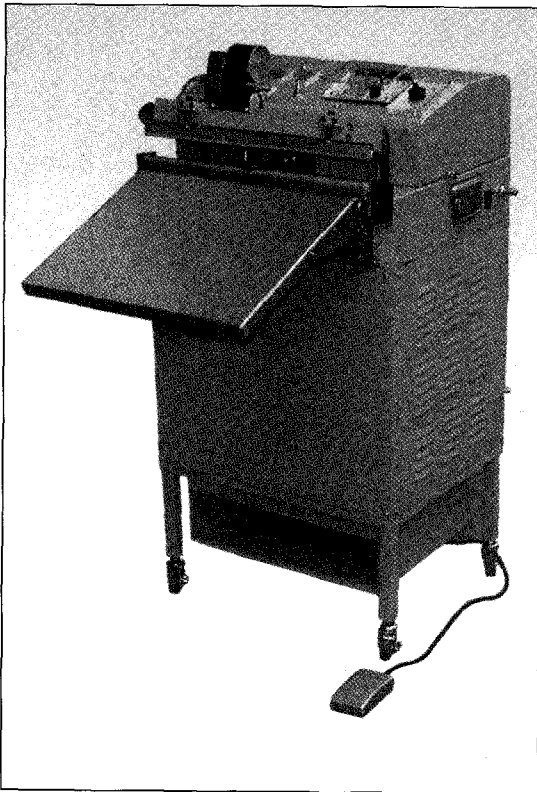
재도약의 발판 마련

지난 1월 25일 가성포장기계를 (주)가성팩으로 상호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인수 대표이사는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내실 강화는 물론 좀 더 나은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에는 새로운 형태의 비닐 접착기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한 자리에서만 정체돼 있는다는 것은 그 기업에 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때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여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대표자



▲ 스탠드형 노즐식 진공 가스·충전 포장기



▲가성팩 공장 작업현장

나 일부 임원만이 경영을 한다고 해서 발전할 수 없다. 임직원 모두가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을 갖고 일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기업은 성장곡선을 탈 수 있다. (주)가성팩이 꾸준한 성장곡선을 보이며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모두가 단합해 열심을 다한 결과다.

김인수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은 가성비팩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되어 열심을 다해주는 직원들을 보면 제 자신이 큰 힘을 얻습니다. 때문에 임직원 모두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달려온 가성비팩은 그 결실로 2000년 3월엔 한국 및 일본에 동시 특허출원 하였고 이어 같은 해 12월엔 대한민국 기술대전에 출품 성과를 얻기도 했다. 2001년 4월엔 유럽 안전인 증마크인 CE 마크를 획득 하였고, 같은해 중소

기업청으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바 있다.

최상의 제품으로 세계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는 가성비팩은 1998년 터키의 바이락타사와 AGENT 계약을 하고 수출을 시작으로 매년 국내 관련 전시회는 물론 2001년 중국 상해와 북경국제포장기재 전시회에 참가해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일본, 대만, 태국, 중국에는 판매 AGENT를 두고 있으며 국내 판매는 물론이며 단계적으로 수출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최상의 제품 생산에 주력해 힘찬 전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주)가성팩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포장기업으로 거듭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